兪恒林 小說 硏究

李 康 彦*

〈차 례〉

Ⅰ. 머 리 말
Ⅱ. '3.4문학'과 '단층' 파의 모더니즘 성격
Ⅲ. 유항림소설의 검토
1.〈馬券〉 2.〈區區〉
3.〈符號〉 4.〈弄談〉
Ⅳ. 지식인의 도시체험과 내면풍경
Ⅴ. 맺는 말

Ⅰ. 머 리 말

1930년대 문학은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잘 알다시피 1927년 카프 제1차 방향전환 이후 강력하게 몰아갔던 이데올로기 문학(마르크시즘)은 1931년 대내외정세의 변화[1]로 말미암아 점차 와해되기 시작하고, 현실도피적 성격인 이른바 순수문학이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문단적 상황과 소설적 경향은 이후 해방이 될 때까지 지속되면서 다양성은 여러 측면에서 증폭되었던 것이다. 가령 이 시기에 이르면 신세대 문인의 대거 등장으로 문인의 계층이 다양해지고, 이들 문인은 다양한 소재의 선택으로 장르의

* 대구대학교 교수

1) 가령 신간회의 해체, 제1차 카프맹원검거, 우가키 총독의 취임, 만보산 사건 및 만주사변의 발발, 반제동맹으로 경성제대생 피검 등의 정세를 들 수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확대 현상과 함께 다양한 문학 경향이 대두되었다.[2]

물론 이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 차례에 걸친 맹원 검거사건으로 자생력을 상실한 마르크스 이데올로기는 그 후반으로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신한 모습[3]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세 가지 소설 양식, 즉 비판적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소설이 혼류하는 가운데 경향소설의 흐름도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4] 있었다. 무엇보다 이 가운데 카프의 와해과정을 틈타 그 윤곽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한 모더니즘 문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먼저 시의 경우, 이미 1920년대의 전반기에 서울에서 발간되었던 '요람' 동인[5]으로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1930년대의 김기림, 김광균 등에 의해 정립된 사상파(imagism)가 각각 영·미쪽과 대륙쪽의 영향으로 다양한 시형식을 실험하면서 주지적 성격의 모더니즘시를 확보해 나갔다. 다른 한 편 소설쪽에서는 전술한 이미지즘, 초현실주의, 주지주의와 일본의 신감각파의 영향으로 심리주의적 모더니즘소설이 '구인회'(1933) 일파로부터 모색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구인회'의 대표적 작가라면 박태원과 이상을 빼놓을 수 없다. 말할 나위 없이 이들은 이때부터 경성 체험이란 도시감각으로 도시공간을 방황하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편린들을 다양한 기법의 형태로 실험하면서 제시해 보였기 때문이다.[6]

요컨대 이것은 1920년대의 리얼리즘소설이 외향적 남성적 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면, 1930년대의 모더니즘은 이와 상반되게 내성적 여성적 정적 요소를 지니면서 변모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두 소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 리얼리즘소설은 전형적 상황에서의 어떤 집단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인물을 중요시하고, 사회적 총체성의 탐구를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전광용, 「한국근대소설의 이해」 민음사, 1983. pp. 485~487.
3) '단층' (1937)의 내면풍경을 다룬 소설과 후일담소설, 지식인소설, 전향소설 등의 장르는 모두 그러한 예들이다. 김윤식, 정호웅 공저, 「한국소설사」 예하, 1993. p. 249.
4) 나병철, '1930년대 후반기 도시소설 연구' 연세대 대학원, 1989. p.3.
5) 박팔양, '요람시대의 추억' 「중앙」 1936. 7. 참조.
6)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이나 이상의 〈날개〉(1936)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그러나 모더니즘 소설은 총체성의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작가의 개별성이나 내면성을 탐구하거나 어떤 특정한 집단의 식과는 상관없는 도시에서 거주하는 개별화된 인물들의 생활을 묘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7]

말하자면 모더니즘소설은 도시에서 거주하는 지식인의 개별화된 내면 세계를 중점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현실을 대처하는 서로 다른 모습에서 두 가지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이상= '3.4문학' 의 서울중심주의와 다른 하나는 최명익= '단층' 파의 평양중심주의[8]가 그것이다.

본고는 모더니즘 가운데 후자쪽, 다시 말하자면 평양을 거점으로 하여 전개된 '단층' 파 소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무렵 우리 소설에 내재해 있는 지식인의 방황과 내면심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단층파의 대표자격이며 가장 뛰어난 작가로 알려진 유항림소설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3.4문학' 과 '단층' 파의 모더니즘 성격

평양 광성중학교 출신의 문청들로 구성된 '단층' 동인은 1937년 4월 '단층' 제1집을 발간하고 동년 9월에 제2집을 그리고 이듬해(1938년 3월)에 제3집을 발간하여 문단에 알려지게 되었다.[9]

3집까지 발표된 '단층' 지의 작품은 시(6편), 소설(15편), 평론(1편), 수필(1편)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있으나 소설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층' 은 더물게 보는 소설중심의 동인지라는 사실과 거의 대부분이 서울(경성)을 거점으로 동인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단층' 은 평양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단층' 에 발표된 소설은 모두 지식인의 내면심리를 중점적으로 그린 점에서 문학사에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7) 서준섭,「한국 모더니즘문학 연구」 일지사, 1988. p.31.
8) 김윤식,정호웅 공저, 「한국소설사」 예하, 1993. p.245.
9) 김남천의 소개('인문평론' 1940.10)에 의하면, '단층' 4호에 실린 유항림의 '니코라이고-고리에 관한 노트' 를 언급한 사실로 보아 그 뒤 '단층' 제4집이 발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단층'에 발표된 소설[10]에 대하여 제일 먼저 논평한 사람은 최재서다. 그는 '단층'에 게재된 작품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이상 제작품을 통하야 이 일파의 의도는 명백하다. 사회적 양심과 이론은 갖이면서도 그것을 신년에까지 윤리화식힐 수 없는 인테리의 회의와 고민을 심리분석적으로 그리랴는 것이 공통된 경향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실험은 허다한 무리와 미숙을 보이고 있다.[11]

요컨대 '단층'파의 소설이 타락한 인텔리의 고민과 그것의 신비화나 인간심리 자체의 기묘함(자기 복수에의 충동)[12]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지만 "허다한 무리와 미숙"을 보인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단층'파 이전에 주로 경성공간에서 활약했던 몇몇 심리주의 작가를 '구인회'와 '삼사문학'동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인회'는 알다시피 1933년 8월 이종명, 김유영의 발기로 조직되어 이태준등 모두 아홉 사람의 기성문인으로 이루어진 문학친목단체였다. 이들의 활동은 부정기적으로 몇 차례의 월평회 및 강연회를 개최하고 단 한 번 『시와 소설』이란 기관지를 발간한 것이 고작이었다. 이때의 활동을 조용만은 뒷날 다음과 같이 술회한 바 있다.

> 억지 족적을 찾는다면 '시와 소설'이라는 표제로 회의 기관지를 한번 낸 일이 있고 또 화제꺼리로서는 발회직후에 강연회를 한번 가졌었는데, 그때 자작시를 낭독하게 된 지용이 자신이 있다고 버티더니 등단직전에 그만 겁이 나서 약주를 대포로 들이키고 들어와서 비로소 기운을 내가지고 시를 낭독하여 큰 갈채를 받았던 것을 들 수 있는 정도이지만, 이까짓것이 무어 대

10) '단층'에 발표된 소설목록은 다음과 같다. ( ) 안은 발표된 호수.
· 김이석, 「감정세포의 전복」(1), 「환등」(3) · 김화청, 「별」(1), 「스탱카 라진의 노래」(2) 「담즙」(3) · 이휘창, 「기사창」(1), 「헤라양」(3) · 김여창, 「육체」(1), 「동가」(3) · 유항림, 「마권」(1), 「구구」(2), · 구연묵, 「유령」(2) 「구우」(3) · 최정익, 「자극의 전말」(2) · 김성집, 「실비명」(3)

11) 최재서, 「문학과 지성」인문사, 1938. p. 187.

12) 김윤식 · 정호웅, 앞의 책, p.187.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수로울 것이 없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13]

이렇게 출발한 '구인회'가 미약하나마 그 나름의 활동을 전개하자 카프 측은 회원마다 상반된 문학적 경향과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유파로 성립될 수 없다는 등 비난과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용, 김기림의 모더니즘 시라든가 이태준, 박태원 등의 소설에 주로 나타나는 세련된 문장과 소설미학은 당시로서는 일종의 전위적 성격을 띤 것으로서 새로운 의미에서의 예술적 기량과 의욕을 보여준 것[15]이었다. 그리고 비록 후기에 동인으로 가담했지만 '시와 소설'의 발간에 앞장서고 다양한 모더니즘시(초기의 다다이즘적 경향과 후기의 쉬르레알리슴적 경향)와 심리주의소설을 발표했던 이상은 대표적 구인회파 작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집단과 조직의 힘으로 논리를 앞세우며 문학을 이끌어가는 일파의 문학보다 자기 스스로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휘하면서 독자적인 문학을 실험해 보였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의 경성이란 도시체험을 세련된 감각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떤 자부심마저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는 꽤 활발한 문학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친목'쪽을 더 중시 여긴 것은 당시의 경성체험이 그들의 감각에 더욱 선명하게 와 닿았기 때문이다. 논리적 사고로 문학을 하는 자들의 집단에서, 조직과 이론 투쟁이 활동의 중심이 된다면, 도회감각으로 문학을 하는 집단에서 거리를 배회하며 도시를 감각으로 느끼는 일이 문학자체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구인회 동인들이 친목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그 자신들의 문학 속성에서 말미암은 것이지 조직 자체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16]

13) 조용만, '구인회의 기억' 『현대문학』1957. 1월호.
14) 이 무렵 '구인회'에 대한 카프파의 시비곡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백철, '사악한 예원의 분위기' (동아일보, 1933. 9. 29.~10. 1.) 홍효민, '1934년과 조선문단 '(동아일보,1934.1.1.~1.10.) 김주용,'구인회'에 대한비판(동아일보,1935.7.28.~8.1.) 박승극,'문예와정치'(동아일보,19356.5.) 신고송,'문단시감' (조선중앙일보,1935.11.16~17) 등
15) 김시태, 위의 글, 위의 책, p.482.
16) 최혜실, 『한국현대소설의 이론』국학자료원, 1994. p.69.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구인회'의 이러한 성격은 1930년대 문학사에서 모더니즘 문학을 형성·발전시키는데 크나큰 기여를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둘째, '3·4문학'은 '구인회'에 비해 모두 신인들이었다는 점과 조풍연을 제외하고 신백수, 이시우, 정현웅, 최영해, 장서언 등 대부분이 시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시작이 이상의 초기작처럼 다다적인 요소는 찾아볼 수 없고 초현실주의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미 이때부터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문인들 사이에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 '삼사문학'의 동인들은 패기와 모험심에 가득찬 문청들이었다. 그들은 당시로 보아서 매우 독특한 일종의 실험들을 꾀했다. 그것이 곧 초현실주의계 작품의 제작이었다. 물론 '삼사문학' 이전에도 우리 주변에 초현실주의계 작품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이상을 그 좋은 보기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실험은 단독행위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한국문학 속에 문맥화시킨 것은 역시 '삼사문학'의 공적이었다.[17]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로 미루어 보면 단독자인 이상과도 유대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삼사문학' 동인들에게 미친 이상문학의 영향은 지대했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모더니즘의 조류를 개성적 측면에서 수용하지 않고 하나의 조류 자체로 수용하고자 한 유파가 바로 '3.4문학' 그룹이다. 이상보다 늦게 출발하였고, 뒷날 이상도 이 그룹에 관여한 바 있는 '3.4문학'의 실체를 검토하는 일은 모더니즘 문학론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항목이다. '3.4문학'(1934.9-1935.12)은 연전출신 문학청년들의 모더니즘계 전위주의적 동인지이다.[18]

'삼사문학'은 이때 젊은 동인들의 패기가 뒷받침되어 이상의 모더니즘문학을 계승·발전시켰는데, 그 한 예로 이들 동인의 작품에서도 띄어쓰기가

17) 김용직, 『한국문학의 흐름』문장사, 1980. p.30.
18) 김윤식·정호웅, 앞의 책, p.226.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없는 시와 국한문체의 표기가 눈에 뜨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동인들의 작품이 이상문학과 연장선상에 놓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930년대 전반기는 카프가 점차 약화되어가는 때를 틈타 기성문인들로 구성된 '구인회' 파의 몇몇 문인들의 과감한 실험정신과 전위예술로서의 시험은 '삼사문학' 의 동인들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으로 와 닿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시작품은 거의 이상풍의 초현실주의에 매료되어 있었고, 또 수필 및 다양한 평론문을 발표함으로써[19]예술 전반에 걸쳐 폭넓게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문단기상이 점차 확산되는 와중에 카프맹원에 대한 제2차 검거(1934)와 이듬해의 카프해체(1935)는 지식인의 자의식 세계를 심리주의 기법으로 드러낸 모더니즘문학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즉 이것이 1937년 평양에서 신인들로 구성된 소설중심의 동인지 '단층' 이었던 것이다. 결국 '삼사문학' 과 '단층' 은 각각 패기에 찬 신인들로 조직된 동인지였지만, 전자는 경성(또는 동경)에서 활동한 시중심 동인지였다면, 후자는 평양에서 활동한 소설중심의 동인지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두 동인지는 모두 프로이디즘의 영향권에서 초현실주의 내지 신심리주의를 토대로 한 모더니즘성격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층' 이 소설중심의 동인지로 등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최명익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냐하면 최명익은 첫째, 평양에서 출생하여 평양고보에서 수학하고 1928년 홍종인, 김재광 등과 '백치' 동인으로 가담, 〈희련시대〉 〈처의 화장〉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1930년대에 들어서서도 다작은 아니지만 꾸준히 수준있는 작품을 발표했던 작가라는 점 둘째, '단층' 동인 가운데 최정익은 최명익의 아우였기 때문에 형의 영향이 아우에게 뿐만 아니라 동인 모두에게 직접간접으로 크게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 시 이외 '삼사문학' 에 발표된 산문들을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몇몇 제목을 제시해 보면, 수필:정현웅, '생활의 파편', 신백수, '靈은 零이니라', 평론: 한수, '발성영화예술의 근본 문제', 이시우, '절연하는 논리', 손명현, '괴로움 가운데의 미소', 정현웅, '사실주의 만보', 한수, '극예술의 본질문제', 소설: 김영기, '걸인', 김원호, '없는 사람들', 조풍연, '대각선상의 여자', '유희 궤도', '간판선수' 등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무엇보다 최명익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인들의 절망과 무기력한 삶이 암울한 이미지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 최명익의 작품세계는 한 마디로 지적해서 음울하고 암담한 분위기가 그 기조를 이루고 있다…… 그 공통성이란 병리적인 상상력이 작용하는 편재화된 병과 죽음, 어딘가 갇힘의 상황 속 에 있다는 한계의식, 좌절되거나 현실에 적응하기를 거절해 버리고 와해된 불행한 삶을 사는 지식인들의 의식과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타락한 삶이 암울한 이미지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의 작품은 밝은 것이 아니라 매우 침울하고 우울한 분위기로 일관되어 있다.[20]

대부분의 '단층' 동인의 작품들도 이러한 성격과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카프해체 이후 지식인들의 무기력한 삶을 지식인을 통한 심리적 갈등으로 표현해 놓았기 때문이다.

Ⅲ. 유항림소설의 검토

유항림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단층' 동인의 한 사람으로서 '단층' 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작가[21]이다. 그는 '단층' 제1호와 제2호에 단편 〈馬券〉과 〈區區〉를 발표하고, 이듬해에 속간된 '단층' 제3호에는 평론 〈개성 · 작가 · 나 〉를 발표하여 '단층' 파 작가로서는 드물게 김이석과 함께 중앙문단에까지 진출하여 〈符號〉('인문평론' ,40.10)와 〈弄談〉('문장' ,41.2)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한 유항림의 4편 소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의 작품세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馬 券〉

유항림의 첫 작품으로 알려진 〈마권〉은 특이하게 짜여진 소설이다. 주인

20) 이재선, '최명익-병리적 상상력의 문제 『한국해금문학전집』12권, 삼성출판사, 1988.p.400.
21) 김윤식 · 정호웅, 앞의 책, p.251.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공 만성은 직업을 얻지 못한 지식인으로서 자의식이 과잉 · 비대한 인물이다. 그는 직업도 없이 무위하게 살아가는 나날에 염증을 느끼고 바쁘게 살아가는 흉내를 낸다. 가령 작품 첫머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성은 골프를 치다가 중도에 그만 두고 바쁜 걸음으로 도서관으로 향한다. 도서관에 도착하고서도 그는 졸음을 참으면서 책을 보는 흉내만 내다가 밖으로 나온다. 이처럼 허위와 가식에 찬 덧없는 일상을 보내면서도 그는 거의 빠짐없이 매일 일기를 쓴다. 일기장에서도 무위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다.

(1) 큰 거리로 여럿이 짝지어 다니지 않을 것
(2) 걸음발 빨리할 것
(3) 할 것이 없으면 우선 그리 반갑지도 않고 만나야 할 일도 없는 동무들이라도 차례로 한번씩 찾아감도 무방
(4) 단, 한 시간 이상의 장좌(長座)는 금물.[22]

이러한 만성이 여러 친구들-종서, 창세, 태홍, 진규 등-과 교유하면서도 이들의 세속적인 삶을 보고 회의를 느낀다. 더구나 종서와 태홍 사이에서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는 혜경을 보고도 더욱 그렇게 느낀다. 그는 또 아버지에게 양복값으로 받은 90원을 은행과 우편소, 그리고 금융조합에 각각 저금을 하고 매일같이 이쪽 돈을 저쪽으로 옮기고 또 다음 날은 저쪽 돈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돌아 다닌다. 그러다가 만성은 진규에게 학생증과 열차할인증을 빌려 흩어놓은 돈을 모두 찾아 마권을 사는 기분으로 동경에 갈 것을 결심한다. 그래서 그는 어느 초겨울 비오는 날 밤차를 타고 이곳을 떠난다는 내용이다.

이때 만성이 동경으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종서에게 남긴 말은 다음과 같다.

"솔직한 말이지만 나는 어젯밤에 너를, 너뿐 아니고 우리들을 경멸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가운데 너를 전적으로 경멸할 수 없는 것 같이 생각됐

22) 유항림,〈마권〉, 『한국해금문학전집』제12권, 삼성출판사, 1988. p.185. 이하 작품은 모두 이 전집에서 인용함.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다. 모두 개성의 문제같이 생각됐다. 이론 가운데 사는 보람이 있는 것 같은 쾌감을 느꼈다. 나는 거기서 내 결심을 새로이 굳게 할 필요를 느꼈다. 너는 해경과의 경우에 이론을 몰랐다면 좀더 인간미가 있는 인간이 됐을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론이 싫어졌다."[23]

이 소설을 보면 무엇보다 주인공 만성의 성격부터 특이하다. 그는 물론 전문학교를 나온 지식인이지만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집안이 가난한 것도 아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넉넉히 용돈도 준다. 그러나 이 돈으로 골프를 치거나 트럼프 놀이를 하면서 소일하는 것이 고작이다. 다시 말하자면 뚜렷한 생활의 목표도 없이 무위하게 살아가지만 남들의 눈을 의식하고 언제나 바쁜 체하면서 동분서주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흔히 자신의 이상이 현실보다 더 높게 자리잡고 있을 때 생활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즉 자의식이 과잉[24]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현실과의 불균형, 부조화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자의식 과잉자의 비극, 이것의 극단화된 모습이 이 소설의 주인공 만성처럼 생활파탄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작품의 서술구조는 추보식의 '선적구성'으로 되어 있다. 만성은 무위의 삶을 쳇바퀴처럼 반복하다가 집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으로[25]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요컨대 시간의 순서로 스토리를 이끌어 가던 종래의 소설구조와는 다르게, 이야기 형식이 해체되고 공간형식으로 환치된 소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렇다 할 뚜렷한 사건도 없이 만성의 도시공간의 방황(배회)과 넋두리(내면풍경)가 스토리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말할 나위없이 모더니즘소설이 지니고 있는 두드러진 성격 가운데 하나이다.

단층파 작가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이 작가도 또한 현대사회의 도시공간을 지배적 배경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공간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23) 〈馬券〉, p.205.

24) 자아에 관한 의식은 욕구저지(frustration)가 강할수록 의식화되기 쉽다. 자아가 의식될 때에는 이것은 의식하는 자아가 대립적으로 의식되며, 따라서 저지된 욕구의 의식과 함께 욕구가 저지된 자아의 의식 그리고 이와 같은 자아를 다시 의식하는 자아에로 무한히 펼쳐지는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본다면 만성은 전형적인 자의식 과잉자라 할 수 있다.

25) 이해년, 유항림의 〈마권〉과 〈구구〉에 나타난 '집'의 상징성, 김정자외, 『한국문학에 있어서의 집 그리고 가족의 문제』우리문학사, 1992. p.81.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실업자 군상들이 구더기처럼 들끓는 삭막한 세계의 표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인간적 존엄성이나 위대성과 같은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작가는 삶의 의욕을 억압하거나 분쇄시켜 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창백한 지식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있다.[26]

도시공간을 방황하는 실업자 군상들의 딱한 모습은 이 시대에 널리 찾아볼 수 있는 세태의 한 단면이라 한다면, 이러한 세태에서 만성이란 인물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행위와 내면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비정상적 행위와 내면적 모습이라 하더라도 경성쪽의 이상이나 '3.4문학' 동인의 그것처럼 의식의 분열현상으로 표출된 단계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인물의 내면심리의 파장을 현미경을 통해 보듯 섬세하게 가식없이 드러낸 현상이었던 것이다.

2. 〈區 區〉

유항림의 두번째 작품 〈구구〉는 왕년의 학생시절 마르크스주의 운동에 신명을 바쳤다가 동료 근조의 밀고로 검거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풀려난 지식인 면우의 내면풍경을 서술한 소설이다. 무엇보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에 참패한 지식인의 무기력한 삶을 여러 가지 허위와 가식의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줄거리를 엮어보면 다음과 같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면우는 기생 록주에게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던 중 서점에서 철저히 속물로 변해있는 근조를 만난다. 그는 근조와 기생집에서 술을 먹다가 록주와 부딪히게 되고 그 뒤 록주는 최변호사와 살림을 차리게 된다. 며칠 뒤 만취한 근조가 길거리에서 기생과 싸우는 것을 보고 록주를 생각하며 그녀의 집을 찾아갔으나 온천으로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내려간다. 그곳에서 곧 록주를 만나는데, 마침 최변호사는 급한 일로 먼저 돌아가게 되고 둘은 밀회를 즐기고 돌아온다. 돌아와서부터 면우는 심적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변자로 변하고 최변호사와 살림을 차린 록주와는

26) 김시태, '지식인의 무위와 속죄양 의식' 『문학과 비평』1987. 여름, pp.337-8.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계속 밀회를 갖는다. 어느날 느닷없이 록주의 집으로 찾아온 최변호사를 피해 면우는 골방에 숨고 록주는 최변호사를 꾀어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다.

이 작품 역시 자의식 과잉자 면우의 사이비 애정행각을 통해 지식인의 전락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일종의 후일담소설[27]유형에 드는 이 소설은 한때는 혈기왕성한 사상운동으로 열정을 불태우다가 옥살이를 치루고 풀려난 뒤 변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다.

혼인을 재촉하는 어머니 앞을 벗어난 면우의 변질된 삶은 다음과 같은 관념의 서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 담배를 피우는 것이 그렇고 다방에서 두세 시간 걸리며 차를 마시는 것도 그렇고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한갓 기호품에 지나지 못하는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거리로 나오면 으레히 책사에 들러 신간을 찾게 된다. 자기가 택한 길은 다념하지 않을 수 없고 무릇 이론의 원동력일 실천의 의무를 해제 내지 조소하는 지금 아무런 책을 읽는대야 생활의 도움이 되리라고는 기대부터 갖지 않지만 잉크 내음새가 코를 찌르는 신간을 대하면 호용은 둘째로 한 갑의 담배를 사는 따위의 가벼운 동기에 지배되고 마는 것이다. 절실한 요구를 잃은 타성적 독서벽은 모든 것에 대하여 거의 일률적으로 흥미를 갖게 되고 또 흥미 이상의 아무런 공명도 갖는 법이 없다.[28]

어느 하나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몰두하지 못하고 술집이거나 다방에서 술과 담배와 같은 기호품으로 소일하거나 도시공간을 방황하면서 막연한 관념만 나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등룸펜식 삶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위압적 시대의 분위기 때문에 자기의 진실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게 된 지식인의 고뇌와 갈등을 의식의 흐름 수법으로 묘사하고[29]있는 것이

27) 후일담소설이란 1930년대 초기의 대대적인 사상탄압 이후 성행한 소설 유형이다. 등장인물은 한때 '운동자', '주의자'였다가 의지와 기력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로 되어 있으며, 이들이 어지러운 세태에 도전도 적응도 하지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방황 또는 타락해 가는 우중충한 일화가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1930년대 후반의 좌절감과 패배의식을 투영한 소설 유형이었다. 김홍규, 『문학과 역사적 인간』창작과 비평사, 1980. pp.303~304.

28) 〈구구〉, p.213.

29) 김시태, 앞의 책, p.340.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다.

따라서 유항림소설 뿐만 아니라 단층파 작가들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특징으로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시간의 측면에 매달리며 스토리를 전개하는 종래의 소설 구성법과는 달리 공간형식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설은 엄격히 말하면 일정한 사건이 없을 뿐 아니라 스토리조차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부챗살 모양 또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산만하게 흩어지는 구성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상이한 인물들이 사건에 대한 개인적 측면의 견해를 차례로 서술하는 다궤적 소설[30]과도 다르다. 왜냐하면 주인공 면우라는 한 인물의 행적과 사고를 따라 다니며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 가령 도시공간을 드나들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른바 참패한 지식인의 얼룩진 내면풍경을 확대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비정주성 · 공간상실 · 부권상실'을 상징하는 도시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그 테두리를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한 식민지 지식인의 비정상적 삶과 전도된 삶의 지속으로, 본래적 자아의 상실을 보여준 결과이며 끝내 갈림길에 머물러 갈등하고 있는[31]고뇌하며 방황하는 심적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3. 〈符 號〉

'단층' 동인이 와해된 뒤 1940년 '인문평론' 10월호 신인특집란에 김영석의 〈월급날 일어난 일들〉과 이석징의 〈도전〉이란 작품과 함께 〈부호〉는 처음으로 중앙문단에 소개된 유항림의 작품이다. 이 작품을 소개한 김남천은 작품게재 첫 머리에 직접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유항림 문학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어떤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부호'는 전기 고-고리 노트가 씌어지기 훨씬 전에 쓰여진 작품이란 것을 알 수 있으며, '마권'이나 '구구'와 동일한 계보에 속하면서, 작가 유씨가 그뒤 오랫동안 작품에 붓을 들지 못하였다는 비밀까지를 전하여주는 작

30) 프란츠 슈탄젤 · 안삼환 역, 『소설형식의 기본유형』 탐구당, 1982. p.115.
31) 이해넌, 앞의 책, pp.92-93. ckawh.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품이다. 오래간만에 나온 씨등의 동인지에 유씨가 소설을 쓰지 못하고 노트를 썼다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다. 혹은 유씨가 '단층' 파의 이단자가 될런지도 모르고, 또한 그런 기대 밑에 유씨의 문학에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32]

이것을 보면 유항림은 '단층' 3호 이후 '고골리에 관한 노트' 정도를 집필했을 뿐 한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부호〉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 작품의 성격은 '단층'에 발표했던 두 편의 소설과 동일계보에 속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 우선 이 작품의 내용부터 살펴보고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을 밝혀보도록 한다.

주인공 동규는 성호의 아내가 된 옛 애인 혜은을 뜻밖에 집앞에서 만나 저녁을 함께 한다. 혜은은 다시 형 택규에게 인사나 하고 간다 하며 집까지 함께 온다. 택규는 잠시 이야기하다 먼저 나가고 동규와 혜은은 자기들의 이야기가 담긴 태환의 '낙오'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서로의 감정을 억누르고 거리로 나온다. 동규는 혜은을 바래다 주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지만 다음날 혜은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난다.

위궤양을 앓고 있는 동규는 과음으로 쓰러지고 형으로부터 걱정을 듣는다. 동규는 이때부터 작품을 쓰며 시간을 보내다가 건강이 악화되므로 온천으로 휴양을 떠난다. 떠나기 전, 의사로부터 일주일간에 걸친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와 보니 혜은의 편지가 와 있다. 편지를 읽다가 형 내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자신의 병이 위암임을 알게 된다.

동규는 몹시 흥분하여 진단서를 혜은에게 보내고 방황을 하다가 죽기전에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기로 결심한다. 태환은 출판사에서 동규의 작품집을 내라는 교섭이 있었다며 작품 '호노리야'의 일부를 받아간다. 한편 택규는 혜은이 만나달라는 연락을 받고 태환의 집으로 간다. 그런데 갑자기 혜은이 뛰쳐나와 택시를 잡고 집으로 오게 된다. 혜은은 태환의 집에서 '호노리야'를 보고 그것이 자기에 대한 동규의 마음임을 알고 죽어가는 동규의 곁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택규는 집앞까지 와서 도대체 동규는 '호노

32) 김남천, '신인창작소개', 『인문평론』1940. 10월호, p.116.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리야'에서 어떠한 애정표현을 했기에 저렇게 흥분할까 생각하면서 원고를 소중하게 간직한 채 비오는 골목길을 빠져 나온다.

이 작품은 앞의 〈구구〉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애정행각을 다룬 작품이지만 〈구구〉에서는 면우라는 지식청년의 허위와 가식으로 변질된 사랑을 희화화하고 있다면, 〈부호〉는 동규라는 지식청년(작가)의 진실한 사랑을 표현한 이야기다. 그러나 나약한 주인공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혜은을 성호에게 빼앗기고 설상가상격으로 위암선고까지 받는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그는 혜은과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소설 '호노리야'를 완성하기 위해 전력을 투구한다.

혜은은 동규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우연히 '호노리야'를 읽고 크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 작품은 끝난다.

> 차가 골목 앞에 닫자 혜은이는 그의 집을 향해 재게 달려갔다. 택규는 따라왔으나 혜은이가 문을 박차듯이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자기 집이면서도 들어서기가 어쩐지 무서웠다. 잠시 집 앞에 발을 멈추었다가 그대로 지나쳤다. 지금껏 무의식 중에 힘있게 쥐고 있던 동생의 원고를 들여다 보고 대관절 어떤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혜은에 대한 연모의 정을 그린 것이길래 혜은이가 그렇게 흥분하는가, 또 목숨이 길지 못할 위암 환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까지 열중하는가 생각하면 무서워도졌다. 그는 빗방울이 점점 커져감을 의식하고 어디든 들어앉을 곳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래도 저항없이 닥치는 대로 자그마한 골목으로 빠지었다.[33]

그리고 이 작품은 '단층'에 발표되었던 두 작품 〈마권〉, 〈구구〉와 마찬가지로 도시 지식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분위기나 톤은 매우 다르다. 전자가 대체로 부박한 도시세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전도된 삶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이야기를 희화적 톤으로 그리고 있다면, 후자는 삶을 진지하고 엄숙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도 지나치게 자아중심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종 감상적 톤이 지배하고 있다.

33) 〈부호〉, p.260.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4.〈弄 談〉

'인문평론'에 〈부호〉를 선보인 다음해 유항림은 '문장'지에 다시 〈농담〉을 발표한다. 이 작품도 주인공 영배(소설가)와 친구였던 성준(화가)의 4촌 여동생 경히(유치원 보모)와의 기묘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그러나 이들 영배와 경히 사이에는 연극활동을 하며 사상운동을 하다 3년간 옥살이를 한 뒤 만주에서 얼마간의 돈을 모아 돌아온 정일의 인생유전도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간략하게 줄거리부터 엮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상운동을 하다가 3년간 옥살이를 치루고 난 정일은 만주에서 장사를 하여 얼마간의 돈을 모아 돌아온다. 정일은 옛 친구인 영배와 술자리를 함께 하고 그 자리에서 영배가 농담으로 얘기한 여자와 가까와지는 방법을 이용하여 한 여인과 사귀게 되고 그 여인과도 가까와진다. 하루는 영배에게 이 여인을 소개시켜준다. 소개를 받고보니 경히다. 경히는 친구 성준의 동생으로 영배가 흠모해오던 여인이다. 그날 정일은 형의 집에 손님이 와서 영배네 집에 머물기로 하고 헤어진다. 영배는 실연의 상처를 술로 달래면서 밤늦게 돌아와 보니 정일은 쪽지를 남기고 나가고 없다. 며칠간의 술기운과 감기로 누워있는 영배에게 경히가 보낸 소포가 배달된다. 그것은 곧 영배의 일기장이다.

그날밤 정일은 영배없는 방에서 영배가 적어둔 일기장을 보고 그것을 경히에게 보낸 것이다. 일기에 적힌 내용은 경히에 대한 영배의 열렬한 사랑을 담은 것이었다. 소포와 함께 온 편지에 경히 또한 영배를 사랑했고, 정일을 사귄 것도 영배를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다.

> 그날밤 2시가 지나 영배는 술이 잔뜩 취하여 비틀거리며 한 마디는 '에이 깨끗해--' 하고 한 마디는 '에이 더러워--' 서울 말투를 흉내내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실연의 고배를 잊고자 하기보다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이 이러쿵저러쿵 구역나는 저울질이나 할게 두려워 차 라리 술이 취하여 한 번 서러이 울기라도 하려던 것이 종시 그 모양의 추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
> 자정에 술집을 쫓겨나 비츨거리며 집으로 오노라니 웬 자 하나가 길을 막고 서며 그대는 취객인가 하고 서울말로 물으므로 날보고 물어볼 것 없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그대 눈에게 물어보라고 싸움이라도 할듯한 어세로 대답하자
"친구, 그러면 p원은 어덴가. 그것쯤 모르고도 취객이라고 할랴구."
너털웃음을 웃는 것이었다.[34]

나약한 지식인 영배의 분열된 의식이 드러나 있다. 즉 한쪽 자아는 깨끗하다고 부르짖고 다른 쪽 자아는 더럽다고 부르짖는가 하면 실연의 고배를 의식하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자아가 두려워 술을 마시고 객기를 벌인다. 또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워 하며 후회를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중학시절에는 착실한 크리스챤이었고, 예과시절에는 향학열에 불타는 고학생이었으며, 다시 본과시절에는 마르크스 신봉자였던 정일이 속물 연애광으로 전락한 모습은 이 무렵 세태의 일 단면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얼룩진 지식인의 삶의 풍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유항림의 이 작품 역시 자의식이 과잉·비대한 지식인의 자포적인 삶과 내면풍경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지만, 의식의 분열과 파탄현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작품과 크게 다른 면이라 할 수 있다.

Ⅳ. 지식인의 도시체험과 내면풍경

1937년 '단층' 동인으로 출발하여 중앙문단에 까지 진출했던 유항림의 4편 소설을 개관해 보았다. 4편 모두 '단층'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 지식인의 부박한 삶과 내면풍경을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평양계열의 모더니즘 문학이 지니고 있는 면모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의식이 극도로 과잉·비대한 지식인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잘 알다시피 1930년대의 우리 소설에는 지식인의 증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텔랙츄얼 히어로'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뚜렷하게 양적인 증가를 보였다는 사실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의미를 낳게 하

34) 〈농담〉, p.276.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는 것이지만 우선 당대 작가들의 자기성찰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높아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설양식을 그만큼 무게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의미도 된다. 흥미있는 이야기를 담는 것도 좋지만 지식인을 등장시켜 삶, 시대, 사회, 사상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자각이 두드러졌다는 뜻도 된다.[35]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소설은 분명 삶의 깊이있는 성찰을 도모할 뿐 아니라, 시대나 사회적 문제를 하나하나 심도있게 파악하므로 소설의 비중을 훨씬 무게있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 식민 통치기의 지식인은 두 가지 상반된 의식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아상실의 체험계열이며 다른 하나는 무한투쟁의 체험계열이다. 이들은 문화에 대한 대응 양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다시 두 가지 양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식민통치기간에 나타난 한국 지식인의 자아상실과 무한투쟁은 한민족의 전통문화와 구미 · 일본의 외래문화에 대한 대응양식에도 나타났다. 자아상실은 다시 두 가지 양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양태는 전통문화를 외면하고 외래문화에 기울어지는 양태이며, 둘째 양태는 외래문화를 거부하고 전통문화에 숨어들어감으로써 현실을 외면하는 양태이다. 그리고 무한 투쟁은 식민통치에 대한 국내외의 항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양태이다.[36]

이 경우 유항림소설에 등장하는 지식인 주인공들은 모두 식민통치기간에 자아상실형으로 드러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아상실의 지식인 양태에서도 첫째 경우에 해당되는 전통문화를 외면하고 전적으로 외래문화에만 경사되고 있는 이른바 무의자 또는 삶의 방종자들이다.

둘째, 도시공간에서 부유하는 삶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잘 알다시피 경성(서울)을 무대로 한 이상, 정인택 등의 일련의 심리소설은 무기력한 지식인 주인공들이 닫힌 공간(주로 방안)에서 처절한 절망의 신음소리를 내뱉는 독백체로 표현되고 있지만, '단층' 동인의 그것은 평양이란 도시공

35) 조남현, 『한국 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84. p.135.
3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지식인의 의식과 사회적 기능』 고려원, 1987. p.62.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간을 주무대로 삼고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분주하게 배회하면서 삶의 허망함을 주로 남녀간의 사랑문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유항림소설 가운데 〈마권〉에서 공간 이동의 모습을 그림으로 제시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37]

아 침

① ——————————————————

골프장-도서관-신문실-골프장-창선의 집-집앞

아 침-밖-일 요 일

——————————————————

창밖-영화관(정전됨)-어렴풋한 게시판-어두운 길

밤

② ——————————————————

어두운 방안-방안-은행-우편소(금융조합)

화요일 저녁

③ ——————————————————

조용한 그릴(이층 귀퉁이)-은행-골목-강변-거리

이튿날 저녁 초동의 비

④ ——————————————————

은행 · 금융조합 · 우편소-집-역-프랫홈

주인공 만성의 행적을 추적하면 이와같이 주로 도시의 문화공간이 비중있게 나타나고 있다. 시간은 아침 또는 저녁으로서 어두운 이미지를 주는 공간과 분위기가 집중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직인 이들이 닫혀있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열린 세계를 희구하고 찾아

37) 최상윤, '단층' 지 작품연구, 『동아논총』 제24집, 1987. p.49.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가는 곳은 1930년대 사회적, 경제적 토대 위에 세워진 문화적 공간이다. 주로 다방, 카페, 도서관, 서점, 영화관, 술집 등을 전전하는데 그들이 만남의 공간으로 상정한 그곳에서도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의식에 자극만 가져다 줄 뿐 현실적인 측면으로나, 자신들의 이상이라는 면에 있어 아무런 해결의 장이 되지 못한다. 열린 장소로 여기고 찾아간 곳 역시 닫힌 공간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이 희구하던 열린 세계에의 행복한 만남은 자의식의 반추만 일으키게 하며 끝없이 자기 속으로 침몰하게 한다.[38]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도 공간이동의 현상이 경성 시가지를 배회하는 이른바 고현학의 창작방법으로서 산책의 테마[39]가 드러나 있지만, 유항림의 경우 문화적 공간은 하나같이 소모적 삶으로만 표상되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왕년에는 모두 마르크스 이데올로기를 통해
젊은 열정을 불태우다가 외부의 강압으로 조직이 와해되자 이들은 옥살이를 치루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신념과 목표를 잃은 허탈감에서 단순히 도시공간을 배회하는 것이다.

V. 맺 는 말

이로써 '단층' 동인 가운데 가장 촉망되는 대표적인 작가 유항림의 소설 〈마권〉〈구구〉〈부호〉〈농담〉 등 네 편을 간단히 검토해 보았다.

무엇보다 유항림의 작품은 경성파라 할 수 있는 단독자 이상이나 '3.4문학' 동인들의 그것과 서로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평양중심의 '단층' 파는 이데올로기에 참패한 지식인들의 공허한 삶을 다양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이들의 공허한 삶이란 주로 어떤 형태로든 비정상적 남녀관계의 사랑문제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뚜렷한 신념이나 목표를 상실한 패배자들의 소모적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성의 모더니스트 이상이나 '3.4문학' 파, 그리고 정지용, 김기림, 김광균 등의 시에서는 표면에서부터 다다적인 것, 쉬르리얼리즘, 이미지즘 등 다분히 실험적이며 전위적인 색채를 찾아볼 수 있지만, 평양의

38) 김애란, '1930년대 심리소설연구' 대구대 대학원, 1992. p.29.
39) 최혜실,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소설연구', 서울대 대학원, 1991. p.177.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단층'파 작가들의 일련의 소설세계는 현미경처럼 자의식이 과잉·비대한 지식인의 내면풍경을 섬세하게 표출하고 있다. 말하자면 소설의 내면에서부터 공간이동을 통해 부박한 삶의 허구성을 다양하게 펼쳐 내면서 어둡고 침울한 이미지를 심리분석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유항림은 평양출신의 작가로서 '단층'동인으로 등단하여 김이석과 함께 중앙 문단에까지 진출하여 열성적으로 문학에 투신하였지만 분단 이후 생사나 그뒤의 작품에 대하여 전연 알 수 없는 작가다. 그러나 그가 3,40년대에 걸쳐 발표한 4편의 작품을 통해 볼 때 이 땅의 심리소설 작가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다. 따라서 분단 이후 그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도 더욱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 고 도 서

김시태, '구인회연구',『국문학논문선』⑩, 민중서관, 1977.
김용직,『한국문학의 흐름』, 문장사, 1980.
김윤식·정호웅,『한국소설사』예하, 1993.
김애란, '1930년대 심리소설연구' 대구대 대학원, 1992.
김정자외,『한국문학에 있어서 집, 그리고 가족의 문제』
우리문학사, 1992.
김홍규,『문학과 역사적 인간』창작과 비평사, 1980.
나병철, '1930년대 후반기 도시소설연구', 연세대 대학원, 1989.
서준섭,『한국모더니즘문학연구』일지사, 1988.
전광용,『한국근대소설의 이해Ⅱ』민음사, 1983.
조남현,『한국지식인소설연구』일지사, 1984.
최상윤, '단층지 작품연구'『동아논총』제24집, 동아대학교, 1987.
최재서,『문학과 지성』인문사, 1938.
최혜실,『한국현대소설의 이론』국학자료원, 19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지식인의 의식과 사회적 기능』
고려원, 1987.
프란츠 슈탄젤·안삼환역,『소설형식의 기본유형』탐구방, 1982.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기타 자료

『단층』(영인), 『3.4문학』(영인), 『인문평론』(영인), 『문학과 비평』
『현대문학』, 『한국해금문학전집』 제12권, 삼성출판사. 등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